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성 열

국문초록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누적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 8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탈북자’의 경우 입국 자체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존재였다면, 현재의 그들은 남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보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주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때임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예상되며, 그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사례는 최종적으로 통일이 실현될 경우 북한주민들의 체제변화에 대한 적응을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례를 들 수 있다. 적응 문제의 경우 과거 매우 작은 특수한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기관 등에 의한 세세한 관리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근시일 내에 3만여 명에 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극적인 관리로는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에 속한 인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극소수의 특수한 집단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되어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해당 정책에는 2년간의 남한 사회 적응교육, 초기 정착 자금 및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지원정책들은 사실상 초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초기 지원 이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그들의 사회 부적응에서 찾을 때 해당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상황적 이론들이 존재할 것이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 촉발되는 범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상관성이 높은 유인을 찾아낼 경우 차후 그들에 대한 장기적인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바탕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Herzberg의 두요인(two-factor)이론을 참고하여 만족과 불만족을 별개의 개념으로 두었다.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추출한 독립변수들 및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Herzberg의 두요인(two-factor)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들에 따라 동일한 변수를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이한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이에 Alderfer의 생존·관계·성장이론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변수를 분류한 후 개별적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총 6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만족 및 불만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총 190명의 응답자 중 응답이 다수 누락되었거나, 하나의 번호로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181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요인분석의 결과 환경요인, 안정요인, 관계요인, 차별요인, 적극성요인, 자존감요인 등 총 6개의 변수가 도출되었다.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 환경요인, 관계요인, 적극성요인, 자존감요인의 경우 만족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의 경우 차별요인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 있어 전형적인 위생요인으로 볼 수 있는 환경요인이 만족과는 상관성이 있으나, 불만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요인(two-factor)이론에 따라 예상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이전에 처한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을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남한사회의 부적응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으로 차별요인이 도출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극소수의 ‘탈북자’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며, 인권적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도 없다. 3만여 명을 바라보는 누적된 수와 지속적인 증가는 이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사회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정부의 재원 제약 등에 따라 제한된 자원에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그들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만족, 불만, 적응, 부적응
학 번 : 2012-22017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3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제1절 이론적 배경	6
1. 욕구에 관한 이론-1: 고전적모형(합리적·경제적 인간 모형)	7
2. 욕구에 관한 이론-2: 신고전적 모형(사회적 인간)	8
3. 욕구에 관한 이론-3: 성장이론 모형	8
제2절 선행연구의 고찰	11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11
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13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	15
제 3장 분석틀과 연구설계	17
제1절 연구의 분석틀	17
제2절 연구문제 및 가설	18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9

1. 종속변수	20
2. 독립변수	21
3. 통제변수	26
제 4장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에 관한 분석	29
제1절 분석방법	29
제2절 대상 집단의 특성	32
제3절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8
제4절 만족·불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47
제5절 가설 검증 및 분석의 정리	54
제 5장 결 론	57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한계	5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59
참고문헌	61
부 록	64
Abstract	73

표 목 차

표 1 연구문제 및 가설	19
표 2 존재의 욕구와 설문	23
표 3 관계의 욕구와 설문	24
표 4 성장의 욕구와 설문	24
표 5 연령대별 입국현황('16.3월말)	26
표 6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32
표 7 연령대별 입국현황('16.3월말)	33
표 8 재북 직업별 유형표	33
표 9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표	35
표 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표	35
표 11 계층의 변화	36
표 12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범죄 이유	38
표 13 KMO 값	39
표 14 생존욕구에 관한 요인분석	40
표 15 관계욕구에 관한 요인분석	43
표 16 성장욕구에 관한 요인분석	45
표 17 크론바흐 알파	46
표 18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의 재설정	49
표 19 회귀분석 결과	51
표 20 가설 검정의 결과	5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간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	2
그림 2 Maslow의 욕구단계	9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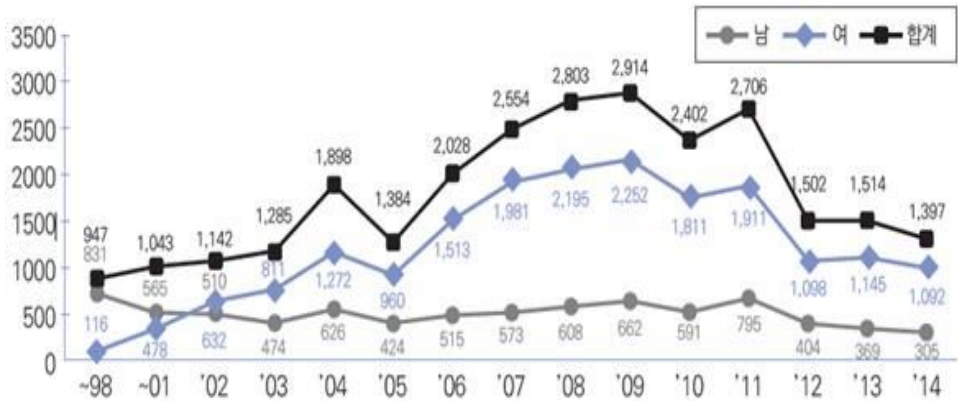
각종 범죄에 연루돼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법무부의 ‘탈북자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1명이던 북한이탈주민 수감자는 2012년 68명, 2013년 86명으로 늘었고, 2014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97명으로 이전 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 범죄는 범죄자 수의 증가라는 양적 증가 측면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사기, 횡령, 살인, 폭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민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한 개인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다른 국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다른 국민들의 시각은 해당 집단의 취업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녹아드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의 증가가 그들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인식이 다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범죄 유인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한다.

한편,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대략 28,2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연간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연 2,500~3,000명 규모를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북·중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1,500명 안팎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도에는 1,397명 입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연간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2015.9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차별 없이 수용하고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지원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남북주민의 원활한 통합 도모의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범죄자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달리 말해서 정책평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대응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응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나 지지를 해당 정책이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판단하는 정책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대응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개선의 노력이 단순한 노력만으로 그치지 않고 대응성 제고라는 실효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실효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정책 대상 집단인 북한이탈주민들이 현 지원 정책의 어떠한 부분에 불만이나 부족함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연구목적

이번 연구의 목적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탈북 출신 국민의 범죄율에 문제의식을 두고, 그들이 가지는 만족 혹은 불만 요인을 분석하여 현재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범죄행위의 경우 주로 현실적 어려움이나 부정적 감정 혹은 충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들이 생계를 위해 범죄를 선택할 처지에 처해 있거나 혹은 사회적응 실패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 혹은 충동을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경우는 그 원인에 있어서 구별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공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의 경우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법의 경우 1997년에 제정·시행된 법률로 제1조에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4년 일부 개정되어 존치되고 있다. 1) 또한 동법 제4조의 3의 2항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현재 제1조의 경우 2010년 전문 개정된 상태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2, 5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을 3, 4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다방면에 걸쳐 북한이탈주민이 바뀐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을 해당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정책 대상에 대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적합성과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해당 집단의 만족요인 혹은 불만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요인 혹은 불만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욕구에 관한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석홍(2011)에 따르면 욕구는 힘을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 결핍시 인간의 내면적 긴장을 조성한다. 또한 욕구의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경험하는 개인은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떨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율 증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탈주민에 의한 범죄는 1차적으로 생계에 대한 어려움에 기반할 수 있지만 더 넓게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 혹은 기대했던 현실과는 다른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불충족에 의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한 동기가 없는 범죄나 필요 이상의 폭력 등을 동반한 강력범죄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욕구에 관한 이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 및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유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동기에 관한 이론 중 내용이론의 경우 핵심 분석 대상이 인간의 욕구라는 점에서 욕구이론(need theories)라고 부를 수도 있다.(오석홍, 2011) 해당 범주의 이론들은 사람들의 동기 유발 요인에 대해 개인의 욕구와 그에 비롯되는 충동 및 목표 등으로 설명한다. 오석홍(2011)은 이를 고전적 모형, 신고전적 모형, 성장이론 모형으로 재분류 하고 있다.

1. 욕구에 관한 이론-1: 고전적모형(합리적·경제적 인간 모형)

고전적 모형은 욕구이론의 초기 단계에서 제시되었으며,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한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며 그와 상반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주거나 규율로서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욕구이론과 마찬가지로 고전적 모형 역시 개인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당 이론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개인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한다. 따라서 개인의 불만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고전적 모형에 따를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탈북 과정의 위험 및 기존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리스크를 감수한 상태에서 기대한 예상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질 경우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속해있던 북한의 사회체제에서 구축된 보상에 대한 기대 체계가 한국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를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보상에 집중한 정책이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이론은 개인의 동기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차후 제시된 이론들에서 해당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른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욕구에 관한 이론-2: 신고전적 모형(사회적 인간)

신고전적 모형은 고전적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합리성 및 경제적 이익만으로 고려하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따라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 역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욕구의 전부로 보고 이론을 전개한 고전적 모형의 경우 실제 인간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해당 모형이 이전의 고전적 모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경제적 이익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보상 혹은 규율로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혹은 동료에 의한 감정, 정서, 참여 등에 의한 유인체계를 제시한다.

3. 욕구에 관한 이론-3: 성장이론 모형

성장이론 모형이 앞서 제시된 고전적 모형 혹은 신고전적 모형과는 달리 다양한 욕구를 제시하고 개인의 자기실현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에 해당 이론을 고전적 모형과 대비하여 현대적 모형이라고도 한다.(오석홍, 2011) 성장이론의 경우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이론들에 복잡한 인간의 유인을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이론 모형의 범주에 드는 이론 모형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Herzberg의 두요인(two-factor) 이론 등이 있다.

가)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

A. H. Maslow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는 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하위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상위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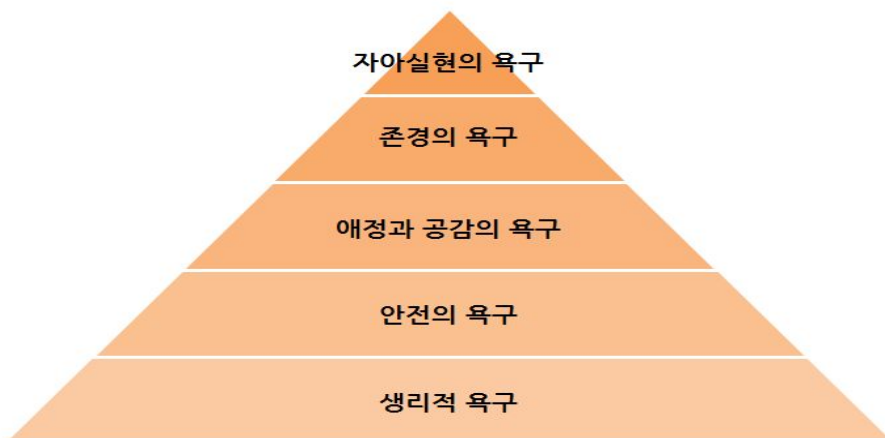
인간의 욕구 크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금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 등 다섯 가지 분류로 구분된다.

욕구단계 이론의 특징적인 면은 다섯 가지 범주의 욕구들이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욕구에는 상대적으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존재하며, 하위 욕구가 충족된 이후 상위 욕구가 발현된다. 따라서 해당 이론에 의하면 하위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하위 욕구의 범주에는 생리적 욕구가 위치한다. 생리적 욕구의 경우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이 위치하며, 해당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개인의 행위 동기는 해당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표출된다. 생리적 욕구에 뒤이어 안전의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금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 등이 뒤따른다.

현실적으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상위 욕구가 발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주요 행위 동기가 해당 욕구의 충족에 지배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림 2 Maslow의 욕구단계



나) Alderfer의 생존·관계·성장이론

C. P. Alderfer는 Maslow가 제시한 다섯 가지 범주의 욕구를 세 가지로 줄여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를 제시했다. 생존의 욕구는 욕구단계이론 중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포괄한 것으로 개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계의 욕구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계이론 중 애정의 욕구, 긍지와 존경의 욕구가 이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성장의 욕구는 자기실현의 욕구와 유사점을 보인다.

Alderfer의 이론이 욕구단계이론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비단 욕구의 범주화만이 아니다. 이 이론은 욕구단계이론에서 일방적으로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주요 욕구의 변화와는 달리 욕구의 좌절로 인한 퇴행 역시 인정하고 있다.

다)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이론

Herzberg의 이론이 이전의 이론과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만족과 불만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욕구에 대한 불충족이 불만으로 충족이 만족으로 나타난다는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하여 동기-위생요인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먼저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취, 인정, 책임,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직이론에서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기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기요인의 경우 개인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불충분한 충족이 불만을 크게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동기요인으로 꼽히는 요소들의 경우 주로 다른 이론들에서 개인의

자아실현 및 존경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불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요인들의 경우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이론들에서 제시된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한 욕구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위생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들이 불충족 될 경우 불만이 높아지나, 일정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고 해서 만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다.

제2절 선행연구의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특별한 사건으로 간주되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행이 이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기간 생활 지원을 포함하여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낮지만 발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이탈 시도나 한국이 아닌 제 3국에 대한 선택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만족에 의문을 들게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들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탈주민의 생활만족, 관광만족 등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역시 일부 존재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강권찬(2005)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에 노출 되는 것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상태에 놓이게 되는 동시에 높은 확률로 빈곤층이 된다. 더하여 사회적 적응 역시 심각한 문제로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한 부적응이 인간관계의 단절 및 소외를 초래하여 심리적인 괴리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높은 범죄율을 제시했다.

더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은 생계보호와 정착기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응 정책의 경우 집중적인 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수용정책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수용을, 경제적 지원 정책에서는 자립과 자활에 대한 지원보다 기본적인 생계에 대한 보호와 정착 기반 제공을, 사회·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로의 동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하고 있는 형태로 분석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생계보호 보다는 자립·자활지원으로 사회적으로는 동화정책 보다는 포용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성중(2012)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거버넌스가 중앙정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민간부문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각은 송은희 등(2012)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 지역사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임정빈(2012)은 이탈주민의 정착이 이뤄지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해당 범주에서의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송은희 등(2012)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이지경(2012)은 대다수의 이탈주민들이 경제적

빈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취업교육과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광호 등(2010)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집단의 특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정책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시대에 따라 남북관계와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변화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혜택에서 자립·자활을 위한 적응교육,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한 교육지원 등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주도의 정책 구조 역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그 역할이 커지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변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당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은 경제적 지원의 방향이 1회성의 정착지원보다 자립·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에 융합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동시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다만 정책변화 역사에 대해 연구한 정광호 등(2010)의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를 제공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문제들의 바탕에는 한국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깔려있다. 따라서 적응의 문제는 이탈주민 문제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정애 외(2013)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응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탈북동기의 경우 환경적 적응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적 적응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하여 환경적 적응이 높은 경우 심리적 적응도 높아지는 상관관계 역시 나타났다.

박채순(2011)의 경우 노원구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정착지원과 더불어 기존의 국민들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탈주민을 통일 대비 활용할 인적자원으로 인정하며 기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잣대에 맞춰 재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요약하자면 이탈주민들의 적응은 단순히 당사자들에게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의 변화도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김경미 외(2013)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경험의 동태적 변화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기존의 자아, 한국 사회에서 기존 시민들처럼 되기 위한 자아, 원래 모습을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아로의 변화를 겪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소속감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김명선 등(2013)의 이탈주민 중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메타연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탈북 과정 및 한국 사회에서의 정신적 외상이 공격성 및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서(2012)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 있어 이탈 전 체제와 이탈 후의 체제 즉 북한에서의 삶의 기간과 한국에서의 삶의 기간의 길이에 따라 적응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이탈주민에게는 공교육이나 대안교육 등의 학교 교육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봤다. 더하여 그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의 정권 등에 따라 정치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한다고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탈북 당시의 연령, 동기 등 개인의 특성에 의해 적응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더하여 공동체 혹은 또래집단에 녹아드는 정도 등에 의해 적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시민들의 인식 역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국 적응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는 내면적인 문제인 동시에 외부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환경적 문제이기도 하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들은 극소수의 특수한 개인이 아닌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삶의 질에 대한 지원이 당연하듯이 그들의 삶의 질과 적응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들은 주로 지원정책과 적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원정책과 적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적응을 돕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적응에 관한 연구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정책에 관한 연구의 경우 경제적 지원 및 교육 등의 필요성 및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적응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탈북 유인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보편적으로 그들은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더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의 경우 체제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낮은 연령층에서는 학업에서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또한 전 연령층

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결국 적응의 문제는 체제변화에 따른 이질성과 사회적으로 융합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 정책적 측면과 적응에 대한 문제를 연결하는데 있어 명확한 요소를 도출한다기보다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요인에 의해 불만을 느끼는지 먼저 도출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3장 분석틀과 연구설계

이번 연구는 욕구이론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만족 및 불만 그리고 그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항목 및 문항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실제 만족 혹은 불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한다.

더하여 범죄의 원인과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어떠한 요소의 불충족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을 높이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앞선 설문조사 및 그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1절 연구의 분석틀

이번 연구의 1차적인 종속변수는 만족과 불만이다. 만족과 불만을 각각 분석하는 이유는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 이론을 고려할 경우 만족의 부재가 불만이 아니며,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만을 만족의 연장에서 봐서 만족요인만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경우 불만 요인 혹은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기대한 정책 효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정책 대상 집단이자 연구 대상 집단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설문조사의 구조는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욕구와 관련된 이론과 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또한 조사된 만족과 불만을 종속변수로 한 상태에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기타 설문 조사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인과 그 정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만족 및 불만 정도와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 증가의 원인을 검토하며, 차후 지원정책의 개선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범죄 유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인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제2절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는 해당 연구의 목표를 나타낸다. 또한 이는 가설을 설정과 추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1차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만족과 불만을 별개로 분석하는 것은 두 요인이론에 따를 때 만족과 불만이 연속선 상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분절된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한다.

표 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설 1	만족	욕구와 관련된 요인의 충족은 만족을 증가시킨다.
가설 2	불만	욕구와 관련된 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감소시킨다.

[연구문제]를 통해서 북한 이탈주민의 만족 및 불만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이론들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만족 요인과 불만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일부라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면 연구의 대상 집단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에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번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들이다. 더하여 범죄 동기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한 범죄의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종속변수

이번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영향 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만족과 불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족과 불만은 하나의 개념으로 그 충족 여부의 유무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일 항목으로 만족을 조사하여 만족이 낮은 경우를 불만으로, 높은 경우를 만족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경우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만족과 불만의 개념을 나눠서 검토한다. 해당 이론의 경우 만족 유인의 부재 혹은 불충족이 불만이라고 보는 다른 이론과는 달리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은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만족과 불만의 개념을 단일 선상에서 보는 경우 실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볼 경우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을 동기요인적 성격을 가지는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동기요인의 불충족으로 발생한 낮은 만족 수준을 위생요인에 대한 지원으로 높이려고 하는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에 대입하여 생각해볼 경우 현재 대상집단에게 주어지고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위생요인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생활환경의 질이 낮아 발생한 불만에 대해 동기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만족과 불만을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다. 더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현재의 지원 정책들의 구조가 해당 원인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역시 검토한다.

2. 독립변수

이번 연구는 1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 및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들에 대해 분석하며, 그 과정에 있어 두 요인이론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했다. 다만 두 요인이론의 경우 변수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매우 많은 수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분류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선정에 있어 좀 더 넓고 완화된 조건으로 Alderfer가 제시한 분류인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바탕으로 먼저 변수를 설정한 이후 두 요인이론을 기준으로 하여 변수를 분류했다. 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집단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독립변수를 검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남한 사회에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독립변수를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두 요인이론의 경우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이 다르다고 보며, 보편적으로 환경적·물질적 유인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에 자아실현, 타인의 인정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전자를 위생요인, 후자를 동기요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위생요인의 경우 물질적·환경적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로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소득, 근무환경, 대인관계, 관리체계 등을 위생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직의 구성원은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이 성취해야할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유인들이며, 다만 당사자가 처할 수 있는 굶주림, 질병 등의 불유쾌한 상황을 회피하게 해준다.

동기요인의 경우 심리적이고 보다 실제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요소들로 볼 수 있다. 두 요인이론이 보편적으로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활용되며, 그에 따른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동기요인의 경우 타인의 인정, 자아실현, 성취감, 책임감, 승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유인들의 경우 물질적 측면보다 심리적 측면에 가까운 유인들이며, 상대적으로 인간이 고유하게 가진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Johnston(1997) 등을 포함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유인이 완벽하게 위생요인으로만 작용하거나 반대로 완벽하게 동기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보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더하여 강황선 외(2008)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요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인 요소들에 대한 동기요인 혹은 위생요인으로서의 구분이 상이한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전반적으로 청결, 시설, 표지판 등 쾌적함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의 경우 위생요인으로 보고, 실체가 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측면이 강한 신속성, 신뢰성, 친절성 등은 동기요인으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거, 소득, 직업, 취업, 의료 등을 위생요인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실현 및 심리적 만족과 관련된 계층의식, 계층상승 가능성, 주변의 인정, 사회적 배려, 자존감,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인식 등을 동기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소득수준, 직업에 있어서 차별에 대한 인식 등은 만족요인으로 볼지 위생요인으로 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동기요인이 조직몰입에 작용하는 유인이라고 봤을 때 임금과 조직몰입을 연구한 연구에서 임금에 대해 느끼는 만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소득 자체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생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은 동기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독립변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표 3 존재의 욕구와 설문

욕구	변수	설문	문항
존재욕구	환경·안정	주거지역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수준에 만족한다.
		주변환경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 공원 등 주변 환경에 만족한다.
		소득만족	나는 현재 소득에 만족한다.
		보수만족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적절한 돈을 받고 있다.
		주거시설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혹은 아파트 시설에 만족한다.
		사회적 배려	남한 사회는 나를 배려하고 있다.
		의료접근	나는 아프면 언제나 병원에 갈 수 있다
		피로도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나는 병원 진료에 만족한다.
		사회에 대한 신뢰	나는 남한사회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표 4 관계의 욕구와 설문

욕구	변수	설문	문항
관계 욕구	관계 · 차별	주변의 인정	나는 인정받고 있다.
		남한사회에 동화	나는 기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주변에 대한 신뢰	나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남한사회에 적응	나는 남한사회에 완벽히 적응했다.
		사회적 성공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경제적 성공	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상대적 보수 차별	나는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하는 일에 비해서 적은 돈을 받는다.
		행정기관 방문 시 차별	나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 때 차별 받는 느낌이 든다.
		취업 기회 차별	나는 기존의 남한 사람들에 비해 취업이 어렵다
		남한 주민들의 차별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 5 성장의 욕구와 설문

욕구	변수	설문	문항
성장 욕구	적극성 · 자존감	현재 삶이 가치 있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사회에 도움이 됨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
		탈북 목표 성취함	나는 내가 탈북을 결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함	나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목표 달성에 대한 믿음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목표가 있음	나는 목표가 있다.

이들 변수들의 경우 개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욕구와 환경에 대해 나열한 후 분류하였다. 따라서 유사한 맥락에서 작용하는 변수들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욕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구분에 있어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더하여 한 요인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모두에 적합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의 위생, 충분한 소득 등은 위생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자아실현, 자존감 등은 동기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인관계의 경우 보편적으로 위생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등은 오히려 동기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더하여 대인관계와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요소이며, 상대적 빈곤감 혹은 급여의 형평성 등은 소득이라는 위생요인과도 관계가 있으나, 인정 혹은 성공이나 성취라는 만족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수를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1차로 넓고, 느슨한 범위에서 Alderfer의 세 가지 욕구로 분류한 후 Maslow가 제시한 욕구의 구분을 가지고 해당 욕구가 포함하는 변수를 설정했다. Alderfer의 경우 Maslow가 제시한 욕구를 바탕으로 재분류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과 안정에 관한 욕구는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위생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장욕구의 경우도 동기요인이라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관계의 욕구의 경우 해당 변수들이 동기요인인지 위생요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차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변수들을 평가한다.

3. 통제변수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 및 불만요인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개인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기준 현재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만 30세 이상이 56%로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약 80%의 비율은 고연령층에 편향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이번 설문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조사한 바 개별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답변을 했으며, 20세 미만의 입국자들을 제외할 경우 만 30세 이상의 입국자가 66%로 증가했다. 또한 통일부 통계자료의 경우 입국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번 설문 응답자들의 나이에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을 빼줄 경우 만 30세 이상이 약 60% 이상으로 증가하여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표 6 연령대별 입국현황('16.3월말)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13	1,542	2,334	1,989	1,245	464	320	8,507
여	615	1,874	5,794	6,471	3,543	1,080	902	20,279
합계(명)	1,228	3,416	8,128	8,460	4,788	1,544	1,222	28,786

※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 자료: 통일부

만족을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려한다면 연령에 따른 행복한 정도를 제시한 연구들은 연령과 만족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연령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조사는 U자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 있어 연령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노동패널조사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OECD의 보편적 국가들과는 달리 35~39세를 정점으로 한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하여 해당 연령 이상의 연령에서 행복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이전 연령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지의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이고, 연령대의 분포는 35세 이상이 약 71%에 달한다. 따라서 행복감과 만족이 유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번 연구에서 만족감에 음(-)의 방향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있어 최말옥(2011)은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고 보았으며,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라는 것을 삶의 만족과 유사한 차원으로 생각할 경우 성별 역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별 역시 통제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8,786명(2016년 3월말 기준) 중 20,279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지의 경우 전체의 55.25%가 여성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다수가 해당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많은 남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득 역시 통제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의 경우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로 이번

연구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통계청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소득을 반영한다. 중산층에 대한 통계청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150%수준으로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이를 201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구간은 대략 187만 8000원 ~563만 4000원에 걸쳐있다. 다만 소득수준은 중산층을 기준으로 상층 및 하층을 더하여 세 범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다수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설문에서도 약 80% 가량이 중산층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중산층 기준을 초과하는 응답자는 1명뿐이었으며, 이를 완화하여 연소득이 6,000만원이 넘는 소득자로 내리더라도 3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 있어서는 중산층에 포함되는가(1) 아닌가(0)로 나눠서 적용했다.

제 4장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에 관한 분석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응답률과 그들이 모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분산되어 있다기보다 집단 내에서의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더하여 거주 지역 등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보다는 정부의 거주지 지원에 의해 정착지가 정해지는 등의 특성이 있다. 집단 내의 강한 네트워크의 경우 응답률 및 신뢰성 있는 응답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집단의 정착적 특성의 경우 지역별 분배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절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에 있어 다수의 질문을 통해 하나의 개념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다양한 욕구 중 자아실현에 관한 욕구의 충족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경우 “당신은 자아실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하나의 질문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수의 질문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설문 결과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가지는 값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경우 다수의 설문들 중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묶어 변수를 단순화시키는데 활용되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나뉘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기존의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들이 목표한 바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하여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활용하여 해당 설문들을 통해 추정하고자 했던 요인의 정규화된 값을 개별 표본별로 도출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욕구 및 만족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설문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다수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 해당 욕구에 대한 충족여부를 추정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추정된 각 욕구의 추정치를 자료로 하여 실제 개인이 느끼는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이 개별 욕구들 모두가 명확히 구분된다거나, 해당 욕구가 명확하게 만족 혹은 불만에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로 욕구를 구분한 Alderfer의 생존·관계·성장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느슨한 범위에서 욕구들을 구분한 후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욕구를 도출해내도록 한다. 또한 요인분석의 실시에 있어 varimax 회전을 활용한다. 요인분석의 경우 다수의 결과값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묶어주는 방법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측정된 값들의 분포에 따라 축을 회전시켜줄 경우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당 값들의 분포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varimax 회전의 경우 요인행렬의 각 열을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보편적으로 요인분석의 결과에 있어 각 요인의 분산값이 1이상인 경우 해당 요인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하여 각 측정값들이 추정된 요인의 하위 차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0.4이상의 값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욕구의 경우 선행연구들이 제시했듯이 개별 욕구가 모두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각 욕구 대상에 따라서 0.4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며, 다수의 요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더 큰 적재값을 가지는 욕구로 분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번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바는 요인분석을 통해 추정한 욕구들의 충족 정도가 실제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만족과 불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두 요인 이론이 제시한 만족과 불만의 구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만약 만족과 불만이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만족의 부재가 불만이라고 한다면 측정된 두 값 사이에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값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면 만족과 불만은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 만족과 불만의 상관관계의 값은 -0.286 수준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그 절댓값이 크지 않다. 따라서 두 요인 이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만족과 불만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족과 불만을 개별 개념으로 둔 상태에서 각 욕구의 충족여부와외의 관계를 보는 것에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다. 회귀분석은 개별 측정값들이 종속변수와 가지는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형의 식을 도출하여 개별 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중에서 Ordinary Least Squares(OLS)모형을 사용한다. OLS모형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 시키는 추정식을 찾는 것으로 이는 개별 관측값을 통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얻을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잔차 제곱의 합은 관측치들에 대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값에 의해 결정된다. 더하여 OLS모형은 모집단의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등의 가정을 담고 있다.

제2절 대상 집단의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대상 집단의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의 바탕이 되는 설문 대상은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숫자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28,786명이며, 전반적으로 연간 입국인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7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구분	'09	'10	'11	'12	'13	'14	15 (잠정)	16.3 월 (잠정)	합계
남(명)	662	591	795	404	369	305	251	77	8,580
여(명)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265	20,557
합계(명)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342	29,137
여성비율	77%	75%	71%	73%	76%	78%	80%	77%	71%

※ 자료: 통일부

전체 입국인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6년 이후에는 70%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입국 당시의 연령에 있어서는 20~49세의 청·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미만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경우 가족과 함께 탈북 후 입국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표 8 연령대별 입국현황('16.3월말)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13	1,542	2,334	1,989	1,245	464	320	8,507
여	615	1,874	5,794	6,471	3,543	1,080	902	20,279
합계(명)	1,228	3,416	8,128	8,460	4,788	1,544	1,222	28,786

※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 자료: 통일부

표 9 재북 직업별 유형표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아동등)	기타	계
남	368	639	3,682	3,082	70	73	207	385	1	8,507
여	110	92	7,281	10,726	1,038	173	445	413	1	20,279
합계(명)	478	731	10,963	13,808	1,108	246	652	798	2	28,786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

※ 자료 : 통일부

탈북 이전의 직업군의 경우 무직 및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설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위 장마당으로 불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역시 181명 중 7명이 존재했으며, 이는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해당 7명 중 1명의 탈북동기에서 화폐개혁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북한 내부의 정책이 주민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외된 응답자를 포함한 전체 190명의 응답자 중에서 함경북도 출신이 96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양강도 출신이 35명, 함경남도가 21명, 평양출신이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설문이 편향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국인원 28,786명 중 18,069명이 함경북도 출신으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강도 출신이 3,819명으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편향된 듯한 응답자의 분포가 오히려 모집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경북도 출신이 유달리 많은 것에 대해 탈북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17,217명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설문외의 응답자 역시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의 거주자였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착시기에 있어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민임대주택의 빠른 취득을 위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표

(단위 :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생계급여	63.5	54.8	54.9	51.3	46.7	40.8	35	32.3	25.3
수급률									
초·중·고	7.1	10.8	6.1	4.9	4.7	3.3	3.46	2.5	2.2
중도탈락률									

※ 중도탈락률 : 교육부 자료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생계급여의 높은 수급률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그 비율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표 1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표

(단위 :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경제활동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참가율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실업률	22.9	9.5	13.7	9.2	12.1	7.5	9.7	6.2	4.8

※ 자료: 통일부

이번 설문에서도 65세를 초과한 응답자를 제외한 경우에 있어 직업을 가진 비율이 약 57%로 통일부의 통계자료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다만 일용직이 약 36% 정도이고 정규직이 약 17.6%, 계약직이 약 11%로 직업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이 수치는 65세 이하 인원 전체 대한 것으로, 직업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규직의 비율은 약 31%까지 높아진다. 다만 이 수치의 경우 일용직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대거 수치에서 빠져나간 결과로 오히려 앞에서 본 수치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약 66%인 118명이 최근 3년 사이에 실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년 사이 소득을 위해 일한 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가 약 31%, 3개월 이하인 경우가 약 20%로 나타났으며, 10개월 이하로 대답한 경우가 전체의 69% 가량으로 이는 고용의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2 계층의 변화

(단위 : 명)

북한계층	남한계층					Total
	상	중상	중	중하	하	
상	0	0	1	3	1	5
중상	0	1	5	10	11	27
중	0	2	17	20	20	59
중하	0	1	3	14	21	39
하	1	1	8	5	36	51
Total	1	5	34	52	89	181

응답자가 느끼는 계층의식의 경우 탈북 이전 북한에서 하층과 중하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약 28% 및 약 22%로 전체의 약 50%였고, 중층으로 생각한 경우 약 32.6%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북한에 중간계층 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느끼는 본인의 계층으로 약 49%가 하층이며, 약 29%가 중하층으로 약 78% 가량이 중하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여기에 18.78%의 중층을 더하면 전체의 약 97% 가량이 중층 이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경우에서 북한에서 체감하던 계층에 비해 계층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극단적으로 북한에서 상층 혹은 중상의 계층으로 인식했으나 남한 입국 이후 중하 혹은 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북한에서의 계층보다 남한에서 오히려 계층의식이 상승한 경우는 하층을 제외할 경우 181명 중 6명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계기가 된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 집단에 속해있는 응답자들의 56% 이상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남한 사회에의 부적응이 23.27%로 뒤를 이었다. 오히려 주요 불만요인으로 꼽힌 차별의 경우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났다.

표 13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범죄 이유

범죄이유	빈도	비율	누적비율
경제적 어려움	90	56.60	56.60
남한 사회의 차별	15	9.43	66.04
개인적 일탈	10	6.29	72.33
남한 사회에의 부적응	37	23.27	95.60
기 타	7	4.40	100.00
합 계	159	100.00	

제3절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Alderfer의 생존·관계·성장의 욕구 이론으로 분류한 개별 설문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매우 다양한 욕구를 3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하나의 세 종류 개념으로 묶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존·관계·성장의 욕구를 상위차원의 개념으로 보고 개별 욕구를 그에 따르는 하위 차원의 욕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인분석을 하는데 앞서 개별 설문들이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 측도를 먼저 도출하였다. KMO 측도는 다른 제 3의 변수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0.5 이상인 경우 요인분석을 수행할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0.8 이상인 경우를 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의 결과를 이용한 KMO 측도는 다음과 같다.

표 14 KMO 값

	Kaiser-Meyer-Olkin(KMO)
생존욕구	0.8292
관계욕구	0.8264
성장욕구	0.7969

위의 결과에 따르면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와 관련하여 진행한 각각의 설문에 대하여 생존과 관계 욕구의 경우 0.8 이상의 값이 성장욕구는 0.8에는 미치지 못하나 0.79 이상의 값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5 생존욕구에 관한 요인분석

측정변수	1	2	3	4	5	6
주거지역	0.542	0.252	0.105	0.346	0.043	0.030
주변환경	0.489	0.366	0.307	0.324	-0.064	-0.044
소득만족	0.689	0.221	0.007	-0.010	0.114	0.025
보수만족	0.711	0.094	0.137	0.018	-0.015	-0.056
주거시설	0.616	0.101	0.238	0.194	-0.058	0.062
사회적 배려	0.420	0.340	0.394	0.093	0.139	-0.034
의료접근	-0.049	0.570	0.260	0.082	-0.211	0.018
피로도	0.233	0.690	0.138	0.021	0.214	0.023
의료서비스	0.262	0.512	0.466	0.073	-0.040	0.023
사회에 대한 신뢰	0.187	0.716	0.047	0.110	-0.072	-0.029
회전 제공합의 적재값	2.229	1.96	0.642	0.295	0.138	0.014

생존욕구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총 10개의 설문으로 분석한 해당 욕구는 회전 제공합의 적재값이 1 이상인 경우를 채택하여 2개의 하위 차원의 욕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최초 설문의 설계에 있어서 생존욕구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될 수 있는 의식주를 바탕으로 하여 생존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의식주 중에서 주의 경우 주거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는 시설, 근린환경, 입지를 고려하였다. 다만 이중 입지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회적 계층 등을 담고 있으므로 관계의 욕구에 포함시켰다. 의식주 중 나머지 식과 주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주거에 비해 작고, 상대적으로 동산에 가까우므로 해당 재화의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보수에 대한 태도로 측정했다. 의식주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요소에 더하여 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했다. 개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 적절한 휴식, 사회에 대한 신뢰를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했다.

생존욕구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설문지를 구성할 때 고려한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식주가 아닌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배려에 대한 항목이 기존에 기대한 의식주 이외의 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의식주와 관련된 항목으로 묶어짐을 볼 수 있었다. 그 원인에 대해 첫째로 사회적 배려의 경우 생존에 대한 안정감이라기보다 환경적인 편안함에 포함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사회적으로 배려 받고 있다는 질문이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모호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당 항목의 요인적재량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중 어느 쪽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배려를 의식주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과 묶어주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 및 소득, 보수 등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Maslow의 분류를 바탕으로 볼 경우 생리적 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휴식, 의료 및 사회에 대한 신뢰의 경우 안전의 욕구로 볼 수 있다.

표 16 관계욕구에 관한 요인분석

측정변수	1	2	3	4	5
주변의 인정	0.768	-0.151	0.009	-0.089	-0.107
남한사회에 동화	0.587	-0.139	0.317	0.063	-0.060
주변에 대한 신뢰	0.501	0.258	-0.069	-0.246	-0.020
남한사회에 적응	0.634	0.007	0.322	0.097	0.086
사회적 성공	0.819	0.047	-0.047	0.022	0.011
경제적 성공	0.684	-0.006	0.045	0.009	0.207
상대적 보수 차별	-0.025	0.575	0.050	0.038	0.008
행정기관 방문 시 차별	0.079	0.575	-0.183	-0.084	0.059
취업 기회 차별	-0.315	0.562	0.023	0.021	-0.053
남한 주민들의 차별	0.098	0.416	0.180	0.295	-0.001
회전 제곱합의 적재값	2.841	1.261	0.282	0.178	0.072

관계욕구의 경우 사회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욕구로 볼 수 있다. 이 욕구의 경우 Maslow가 구분한 욕구에 있어서는 주변과의 관계를 소망하는 애정의 욕구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를 포함하는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관계의 욕구는 사회를 바탕으로 한 욕구로 볼 수 있으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물질적, 내재적 욕구가 아닌 사회에서 발현될 수 있는 욕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속된 사회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정, 사회적·경제적 성공, 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차별, 부적응 등의 부정적 측면 모두 관계욕구와 관련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중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 동화 등은 관계에 대한 욕구로, 성공, 인정 등은 존경의 욕구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모두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구이며, 칭찬 받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것을 애정에 대한 욕구에 포함할지 존경의 욕구에 포함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는 주변의 인정, 사회적 성공, 사회에 대한 도움, 경제적 성공 등의 존경의 욕구와 남한 사회에의 동화, 주변인에 대한 신뢰, 남한 사회에 적응 등 타인과의 관계에 의한 욕구는 요인분석에 의해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인 차별에 대한 설문들에 대해서는 개별 욕구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의 경우 주변의 인정, 사회적 성공 등의 외적성장이 아닌 내적성장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내적성장은 보편적으로 자아실현, 자존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아실현 및 자존감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어 자체의 뜻으로 자아실현과 자존감에 대해 정의할 경우 전자는 잠재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 후자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존감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는데 반해 자아실현의 경우 목표가 되는 자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자아실현에 갈음하여 삶에 대한 적극성을 성장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로 측정하였다.

표 17 성장욕구에 관한 요인분석

측정변수	1	2	3
현재 삶이 가치 있음	0.780	0.211	0.002
사회에 도움이 됨	0.586	0.314	0.117
탈북 목표 성취함	0.609	0.102	-0.087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함	0.411	0.550	-0.031
목표 달성에 대한 믿음	0.459	0.562	0.013
목표가 있음	0.058	0.586	0.032
회전 제공함의 적재값	1.704	1.114	0.023

성장욕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관련 요인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두 요인을 설문 문항을 통해 비교하면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가 구분의 주요 기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인 1의 경우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존감으로, 요인 2를 차후 시점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존재 여부와 달성에 대한 태도로 보아 삶에 대한 적극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경우 측정값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함께 각 변수들이 내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내적 적합성의 경우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Coefficient) 값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해당 값은 내적 일관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0.9 이상인 경우 매우 신뢰성이 높으며, 0.7 이상인 경우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K개의 변수, σ^2 을 개별 변수 Y_i 및 전체 X의 분산이라고 할 때 크론바흐 알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lpha = \frac{K}{K-1} \left(1 - \frac{\sum_{i=1}^K \sigma_{Y_i}^2}{\sigma_X^2} \right)$$

표 18 크론바흐 알파

관련요인	크론바흐 알파
환 경	0.771
안 정	0.772
관 계	0.832
차 별	0.624
자존감	0.743
적극성	0.702

도출된 크론바흐 알파의 값을 검토할 경우 차별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절한 수준 이상의 값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별과 관련된 항목의 내적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직면한 차별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응답자의 다수가 무직 상태로 상대적인 보수의 차별 등에서 본인이 직접 직면한 사실이 아닌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의 인식을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개별 응답자에 따라 문항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 등에서 0.6~0.7 사이의 값들을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본 사례가 다수 있고, 차별이라는 항목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만족·불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앞서 수행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섯 가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동일한 설문에서 수집한 만족과 불만에 대한 자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5점 척도를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변수의 형태가 등간척도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유인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리커트 5점 척도가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된 예가 많으며, 독립변수의 경우 연속형 변수인 요인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독립변수는 앞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섯 가지 요인의 요인점수를 활용한다. 더하여 통제변수로 만족과 불만이 행복과 개념적으로 상관관계가 높다고 가정할 때 보편적으로 U자형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역U자형일 수 있다고 제시되는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한다. 더하여 초기에 설정했던 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변수가 도출되었으므로 앞서 제시한 가설을 수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가설의 재설정에 있어 차별요인의 경우 다른 요인과는 달리 점수가 높아질수록 관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요인들과는 부호를 반대로 설정한다.

표 19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의 재설정

[연구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가설 1	만족	환경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안정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관계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차별요인은 만족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적극성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자존감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가설 2	불만	환경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안정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관계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차별요인은 불만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적극성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자존감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y_i = \alpha + \beta_1 x_1 + \dots + \beta_i x_i + \epsilon_i$$

$$(i = 1, \dots, n)$$

위와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Y_{\text{만족}} = a + b_1 \text{환경} + b_2 \text{안정} + b_3 \text{관계} + b_4 \text{차별} + b_5 \text{자존감} + b_6 \text{적극성} \\ + b_7 \text{연령} + b_8 \text{연령} + b_9 \text{소득}$$

[모형 2]

$$Y_{\text{불만족}} = a + b_1 \text{환경} + b_2 \text{안정} + b_3 \text{관계} + b_4 \text{차별} + b_5 \text{자존감} + b_6 \text{적극성} \\ + b_7 \text{연령} + b_8 \text{연령} + b_9 \text{소득}$$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두 요인 이론이 제시하는 바를 받아들여 만족과 불만을 구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에서도 만족과 불만의 상관계수는 -0.286으로 음(-)의 관계이긴 하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변수와 그 계수를 검토하기 전에 회귀모형 자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귀모형의 경우 “모든 β 의 값이 0이다”를 귀무가설로 설정하며, F값을 이용한 검정을 통해 귀무가설을 기각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때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적어도 하나의 β 가 0이 아니어서 모형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분석에 있어 [모형1]과 [모형2] 모두 회귀모형 자체에 대한 F검정 결과는 99%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설문문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에 있어 전 문항에 걸쳐 같은 선택을 한 응답자를 제외한 후 분석에 사용한 관측치의 수가 181개로 변수 당 약 26개 수준으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만족	[모형 2] 불만
생존	환경	0.329***	-0.0599
		(0.0663)	(0.0814)
	안정	0.0590	-0.0210
		(0.0667)	(0.0820)
관계	관계	0.168**	-0.108
		(0.0818)	(0.101)
	차별	-0.0105	0.663***
		(0.0649)	(0.0798)
성장	자존감	0.334***	-0.0968
		(0.0915)	(0.112)
	적극성	0.175**	0.0508
		(0.0729)	(0.0895)
연령		-0.000372	-0.00631
		(0.00354)	(0.00435)
성별		-0.148	-0.112
		(0.105)	(0.130)
소득계층		-0.203	0.208
		(0.135)	(0.165)
상수		3.590***	3.097***
		(0.224)	(0.276)
관측치		181	
R-squared		0.515	0.337
*** p<0.01, ** p<0.05, * p<0.1			

보편적으로 통계적 분석에 있어 99% 및 95%의 신뢰수준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90% 수준까지 관대하게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신뢰수준을 가지는 변수까지 표시하며, 95% 및 99% 신뢰수준에 적합한 변수 역시 구분하여 제시한다.

R-Squared값의 경우 전체 변동량 중 모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모형 1]과 [모형 2]에서 나타난 0.515, 0.337의 수준은 사회과학에서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모형 1]의 만족과 관련된 유인들에 있어 환경, 자존감이 99% 수준에서, 관계 및 적극성이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 및 안정의 경우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관계, 자존감, 적극성과 관련된 상황의 개선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며, 안정과 차별의 경우 각각의 해당 집단의 만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귀분석의 결과만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된 환경, 관계, 자존감, 적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인과관계에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 못한다. 다만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볼 수 있다.

두 요인 이론의 경우 정신적 욕구 및 성장의 욕구 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물질적 보상으로 대표되는 위생요인의 경우 만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분석결과에 따를 경우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적극성, 자존감의 경우 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만족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제시된 물질적 요인인 환경적 요인이 실제로는 만족에 매우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 몇 가지의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먼저 두 요인이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실제로 욕구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욕구들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보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또한 두 요인 이론의 개념을 채택하여 만족과 불만의 개념을 나눌 경우에도 개별 욕구는 명확히 하나의 개념에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일부 다른 개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환경적 요인의 경우 자존감과도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역시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물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 형성된 욕구의 배경이 환경요인과 만족의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형 2]를 통한 불만에 대한 분석결과 두 요인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존감과 적극성 등의 상위욕구는 불만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생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과 안정의 욕구가 불만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만이 99%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모형 1]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탈북 이전의 환경적 배경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그들에게 있어 남한에서 주어진 환경적 요인과 안정감이 탈북 이전과 비교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준이라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차별의 경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기존의 남한 주민들과의 비교 및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5절 가설 검정 및 분석의 정리

분석의 결과 95% 유의수준에서 만족에 대해서 환경요인과 적극성 요인 및 자존감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불만에 대해서는 차별요인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1 가설 검정의 결과

[연구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가설 1	만족	환경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O
		안정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X
		관계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O
		차별요인은 만족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X
		적극성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O
		자존감요인은 만족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O
가설 2	불만	환경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X
		안정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X
		관계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X
		차별요인은 불만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	O
		적극성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X
		자존감요인은 불만에 음(-)의 관계를 가진다.	X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대표적인 위생요인인 환경요인이 만족에 대해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불만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두 요인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현상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원인에 두 가지 정도로 검토해볼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 하위욕구가 반드시 단일차원의 상위욕구 즉 동기요인이나 위생요인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이전에 처해 있던 열악한 환경적 요인이 해당 요인의 욕구의 충족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생각하건데 모형과 자료가 적합하다는 전제 하에서 불만에 대한 가설의 검증에서 대표적 위생요인인 환경요인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배경적 특성이 욕구체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정의 욕구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탈북 이전 및 탈북시기 그리고 일부에 한하여 중국 거주시기에 있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위협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에 대한 욕구체계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변화시켰을 수 있을 것이다.

불만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관계의 욕구 중 차별만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그 유의성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관계의 욕구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중 명확하게 어디에 포함된다고 구분하기 힘든 욕구로 판단된다.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에 바탕을 둔 두 요인이론의 경우 조직내 인간관계를 위생요인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경우 주위로부터의 인정 등에 의해 자존감 등 내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성장욕구와 관련된 두 요인이 모두 만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과 관계있을 것으로 기대한 존재욕구가 오히려 만족과

관계가 있거나 혹은 불만·만족 모두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서 관계욕구의 경우 만족과 불만에 그 하위 욕구들이 나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의 사람들과 동화되는 정도,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등은 개인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 집단과 차별 받는다는 인식은 불만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제 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한계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당 집단의 만족과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들을 탐색하고, 범죄율 증가에 대한 검토를 간략하게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개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수에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극소수의 특별한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사회 역시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수의 특별한 집단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일방적인 관리가 아닌 사회에 대한 적응과 그 과정에서 대상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더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적절한 목표와 수단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목표를 정책목표라고 볼 때 대상 집단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결국 적응을 돕는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 집단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해당 지원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만족의 증가 정도 및 불만의 감소 정도를 기준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제반 욕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먼저 두 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을 바탕으로 하여 만족과 불만을 상호 개별적인 요인으로 두고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또한 보편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욕구와 차별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들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 더 자주

직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Alderfer가 제시한 세 가지 욕구를 바탕으로 느슨하고 넓게 1차적으로 분류했다. 1차적으로 분류된 세 가지 범주의 요소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 두 가지 요인들로 대표되었고, 도출된 여섯 개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규정하여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만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존감 요인, 적극성 요인, 환경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위생요인의 대표적인 변수인 환경요인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겪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차별요인이 도출되었다.

범죄유발 요인의 경우 크게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있으며 각각 하위차원의 다수의 이론들이 존재한다. 더하여 최근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범죄에 있어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중 하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위에서 분석한 차별요인의 경우 심리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황적 요인으로 낮은 소득과 계층을 검토하였다. 더하여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남한사회에 부적응 순으로 범죄발생 요인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경우 대상 집단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 설문을 확보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 편향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무작위 추출이 어렵고, 집단내 네트워크가 강한 편이며, 회수율 역시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초기 정착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집단은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구성원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 정착지원은 대부분 환경적 요인에 치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분석결과 해당 집단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존감과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이며,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별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적 요인에만 치중된 정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만족을 높이고, 불만을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여 환경적요인에 대한 지원 역시 초기정착 단계에서 단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 자원을 일방적으로 소모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취업 등에 있어 다수가 실업상태이거나 일용직과 같은 취약한 고용형태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불만요인으로 제시된 차별 문제의 경우 남한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가진 경우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나이에 입국한 경우 취업문제에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 및 교육 등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자존감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정착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1회성 지원으로 해당 집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사회에 자리잡은 경우 해당 집단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리와 지원,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더하여 해당 집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원 정책이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가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한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북한이탈 주민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정책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현재에 비해 작을 때 구성된 정책이다. 따라서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하여 해당 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1회성 성격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불만을 감소시켜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의 경우 정부기관의 역량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간과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체제 구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Johnston, Robert. "Identifying the critical determinants of service quality in retail banking: importance and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15.4 (1997): 111-116.

강권찬. "특집: 탈북자; 정책 분석: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분석." *민족연구* 14.단일호 (2005): 35-63.

강황선, · 이훈래. "고객만족 결정요인의 새로운 차원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2008): 155-178.

김경미, · 김미영. "북한이탈 남성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경험." *J Korean Acad Nurs* 43.3 (2013): 431-441.

김명선, · 이동훈.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1 (2013): 39-64.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7.2 (2012): 193-219.

김성연.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09): 1045-1079.

김성중.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2012): 310-321.

김종수. "성격차원 하위요인들과 범죄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 (2005): 85-99.

박정서.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2 (2012): 89-105.

박채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5.2 (2011): 63-88.

송은희, · 신은성. "일반논문: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정책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5.2 (2012): 7-30..

이만중. "범죄 유발심리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5.1 (2006): 175-198.

이성식.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6.

이성우, · 조중구.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6 (2006): 57-76.

이윤희, · 김대권. "상황적 기회요인에 따른 침입절도범의 범행선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6~) 19.2 (2010): 231-257.

이지경.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1 (2012): 101-132.

임정빈.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정책연구 12.2 (2012): 249-272.

정정애, 손영철, · 이정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2.2 (2013): 215-248.

정연대, · 이윤호. "묻지마 범죄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묻지마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접근." 한국경찰연구 12.1 (2013): 213-246.

최승혁, · 김시업.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지각되는 보상과 부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2008): 93-112.

부 록

설 문 조 사 지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여러분의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만족 혹은 불만족 요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결과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에게 만족 정도에 대한 질문이 제시될 것입니다. 질문을 읽은 후 해당되는 선택지에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설문지 상의 당신의 답변은 모두 비밀로 유지됩니다.

9. 현재 직업 (7번에서 유를 선택한 경우)

- (1) 정부기관
- (2) 농업 및 수산업
- (3) 공업
- (4) 건축업
- (5) 사무직
- (6) 기타 ()

10. 최종학력(북한에서 교육을 끝낸 경우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선택)

(남) (북)

- (1) 교육 받은 경험이 없음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대학교
- (6) 대학원
- (7) 기 타 ()

11. 대한민국에 교육 받은 기간(예: 고등학교, 3년)

() 년)

12. 연 소득 () 만원)

13. 보유 자산 () 만원)

14. 주거형태-1

- (1) 공동주택
- (2) 아파트
- (3) 주택
- (4) 공공시설
- (5) 기타 ()

15. 주거형태-2

- (1) 자가
- (2) 전세
- (3) 월세
- (4) 정부 혹은 단체의 지원
- (5) 기타 ()

16.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경제적 계층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17.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직업

- (1) 군인
- (2) 군인 이외의 정부기관
- (3) 농업 및 수산업
- (4) 공업
- (5) 사무직

- (6) 공장(생산직) 근로자
- (7) 기타 ()

18. 탈북 동기

- (1) 먹고 살기 위해서
- (2)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 (3)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 (4)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 (5) 북한 체제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 (6) 자아실현(자유 등)을 위해서
- (7) 기타 ()

19. 나는 최근 3년 사이에 실업경험이 있다.

(예) (아니오)

20. 최근 1년 사이에 소득을 위해 일한 기간이 몇 개월 정도입니까?

- (1) 3개월 이하
- (2) 3~6개월
- (3) 6~9개월
- (4) 9~10개월
- (5) 10개월 이상

21. 귀하가 느끼는 남한 사회에서의 계층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22. 본인이 가진 종교에 대해 선택해주세요.

- (1) 기독교
- (2) 천주교
- (3) 불교
- (4) 원불교
- (5) 기 타 ()

23.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정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아프면 언제나 병원을 갈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한사회가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앞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걱정이 없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인정받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기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같은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병원 진료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한 사회는 나를 배려하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고민이 있지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수준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목표가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부득이하게 폐업하지 않을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한의 공교육 제도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나의 세대에서 계층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기존 남한 주민들을 대하는데 있어 차이가 없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 공원 등 주변 환경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 때 원하는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소득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자식 세대에서 계층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적절한 돈을 받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혹은 아파트 시설에 만족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취미활동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삶에 불만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건강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한 사회에 완벽히 적응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삶이 만족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하는 일에 비해 적은 돈을 받는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탈북을 결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 때 차별 받는 느낌이 든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취업이 어렵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한에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기존의 남한 주민들을 믿을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타인을 배려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최근 북한이탈주민들 중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적 어려움
- (2) 남한 사회의 차별
- (3) 개인적 일탈
- (4) 남한 사회에의 부적응
- (5) 기 타 ()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ung Yul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ore than 28,000 North Koreans have escaped their home region and migrated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To South Korea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group was not regarded seriously because it was too small to make social level problem and government could control it directly. However, continuous inflow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made situation differently. Today, increase of crime which have been occurred by North Korean defectors show that they are one of groups which make South Korea society. Moreover, government lost their power to control them by incre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population.

It dose not make any problem if most North Korean defectors adapt themselves to South Korea Society. However most of them have faced troubles during a period of their adaptation and many people of them failed to live with their new neighborhood. Maladaptation of new society can make dissatisfaction and it can boost crimes. Increase of

crime means there are necessity of review or change of policie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Before review or change of policies, it is needed to analyze characteristic of policy target group. It is main point o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tract some factors that have relation with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Two-factor theory is what separat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and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base of this research.

There are six factors, which was extracted on the survey using factor analysis, such as (1)Environmental factor, (2)Safety factor, (3)Relation factor, (4)Discrimination factor, (5)Self-esteem factor and (6)Positiveness factor. The survey data shows that (1), (3), (5) and (6) factors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and (4) factor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dissatisfaction using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ctually (1)Environmental factor was expected that it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dissatisfaction considered Two-factor theory but outcome is different. It may com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past that they lived in poor environmental condition.

South Korea government has given material subsidy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cluding public rental house and money with two years education. However subsidy and education are one-time support that they cannot be fundamental solution. So there is necessity to make new support program or policy and a result of this research, what factors affect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can help them.